

손으로 보는 세상



시선집중

편안하고 활력 있는 시각장애인의 노후생활을 꿈꾸며...
최금자(충주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장)

테마기획

일본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인터뷰

한국에서 찾아보고 체험하는 프랑스 문화,
시각장애인 프랑스 문화 동아리 '레자미'

포커스

시각장애인 정보이용 차별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02 | 목차

03 | 점자로 말해요

- 가을바람

04 | 시선집중

- 편안하고 활력 있는 시각장애인의 노후생활을 꿈꾸며
최금자(충주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장)

06 | 테마기획

- 일본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관, 어떤 곳이 있을까요?

08 | 인터뷰

- 한국에서 찾아보고 체험하는 프랑스 문화!
시각장애인 프랑스 문화 동아리 '레자미'

10 | 포커스

- 시각장애인 정보이용 차별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12 | 함께 사는 이야기

- 헝가리에 다녀와서
김철환(시각 1급_서울특별시 은평구)

13 | 월드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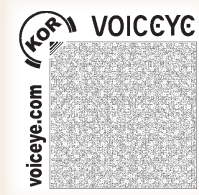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상 디자이너, 루질레
- 여섯 번째 감각으로 사물을 인지하는 멜리나 캐닝

14 | 뉴스앨범

- 닛폰재 캠핑존에서 시각장애인 캠핑스쿨 열려
- 금융감독원, 시각장애 청소년을 위한 보드게임 제작
- 한시련, 제31회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점검자 양성교육 개최
- 2017 점역교정사 보수교육 실시

16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 노래방에 갈 때



9월에 접어들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바람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가을바람

① ④
② ⑤
③ ⑥

점자 일람표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ㅙ	ㅛ	ㅜ	ㅠ	ㅝ	ㅞ	ㅟ	ㅠ	ㅡ	ㅣ	ㅑ	ㅓ	ㅕ	ㅗ	
약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열	영	옥	온	웅	운	울	은	을	인	것	쌔받침			
약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숫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문장부호	.	?	!	,	-	~	.	"	"						
	:	:	줄임표 (...)												
영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영어시작	끝	대문자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히]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 ㅈ, ㅊ, ㅊ, ㅊ] 다음에 약자 '영'이 올때는 'ㅇ'으로 바뀐다.

편안하고 활력 있는 시각장애인의 노후생활을 꿈꾸며

최금자(충주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장)



UN은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비율이 전체인구 가운데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7년 현재 13.8%로 역대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

2016년 12월말기준 만65세 이상 시각장애인은 121,286명으로 전국시각장애인총인구의 47.9%를 차지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2명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얘기다. 시군지부로 갈수록 시각장애인노인 증가율은 더 심각하다.

따라서 필자는 시군지부에 시각장애인경로당을 설치 운영하여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 시각장애인분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통해 생활여건 개선 및 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여 고독감 및 고립감을 해소시켜 신체적 건강 및 노후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시각장애인경로당을 통해 증진되었으면 하고 제안을 해본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노인들의 건강유지, 여가 선용을 위해 경로당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충주시지회에서도 2010년 충주시로부터 시각장애인경로당 건축비 6천만 원과 로터리클럽의 후원금으로 경로당을 건립하였다. 참고로 그 해 충주농아인협회에서도 전세자금을 지원받아 경로당을 설치하였다. 2011년 제천시지회에서 제천시에서 2층 건물을 지원받아 1층은 제천시지부 사무실로, 2층은 시각장애인경로당으로 사용 중이다.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경로당의 설치자금(전세금 또는 건축비일부), 냉난방비, 공공요금, 양곡구입비 등 운영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열악한 지회에서 시각장애인경로당을 설치, 운영하여 노령기에 접어든 시각장애인분들이 차별화되어 있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 받아 '편안하고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여가·문화생활을 향유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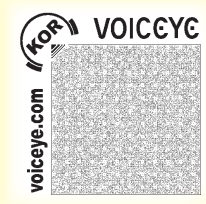
조금 더 삶의 질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되어 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각 지역마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것은 지역별 기능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운영되는 것이다. 경로당도 이에 다르지 않다. 전국에 6만3천개의 경로당이 있지만 중증시각장애인노인 이용률은 제로에 가까운 수치일 것이다. ‘그림의 떡’이라는 옛 속담이 있다.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용할 수 없거나 차지할 수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우리 특성에 맞는 경로당도 설치, 운영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이에 더하여 우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노인실태조사를 적극 활용하여 노인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양적·질적 발전을 위한 모색, 균형 있는 노년기 삶의 질 제고방안 제시 등을 통해 남 눈치 안 보고 편하고 여유로운 여가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쉼터공간이 마련된다면 1인 가구, 혼밥 등 몸과 마음이 외로운 시대에 함께 할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든든하지 않을까?

전국에 각 지역마다 시각장애인경로당을 설치·운영하여, 시각장애인 노년의 삶이 ‘편안하고 활력 있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받기를 희망해 본다.





일본 도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도 있는데요. 신주쿠구에 위치한 이 일본점자도서관은 일본 전 지역 약 50개의 점자도서관을 통틀어 가장 큰 도서관입니다.

이곳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19만권, 테이지 및 녹음도서 7만권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이용한 ‘사피에(여러 데이터로 된 자료들이 수록된 프로그램)’라는 도서관이 있어 전국의 점자도서관에서 일본점자도서관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 약 900종류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용구를 취급하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필요한 용구를 온, 오프라인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각 지역마다 제공되는 복지 혜택에 차이가 있다 보니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지역의 시각장애인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시각장애인 기관들은 지역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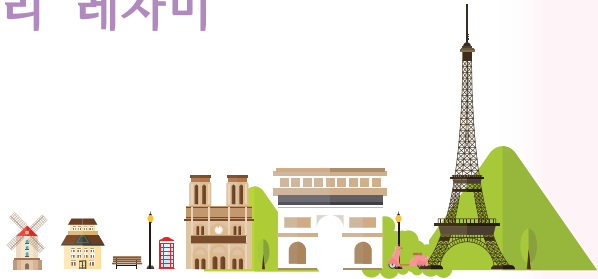
한국에서 찾아보고 체험하는 프랑스 문화!

시각장애인 프랑스 문화 동아리 ‘레자미’

Les Amis,

프랑스어로 ‘친구들’이라는 뜻인데요.

프랑스의 이모저모를 체험해보는 시각장애인 동호회,
레자미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레자미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레자미는 총 7명으로 구성된 프랑스 문화 동호회입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문화, 역사, 언어 등 다양한 면면을 서로 알아보고 한국에서 프랑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찾아 간접적으로 프랑스를 느껴보고 있습니다.

레자미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처음 저희가 모이게 된 것은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 덕분인데요. 저희는 모두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로 만난 인연입니다. 특히 레자미 구영철 회장님의 프랑스 10년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모이게 되었는데요. 영미문화는 한국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프랑스 문화는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호회를 만들어 유럽의 정신적 고장인 프랑스를 느껴보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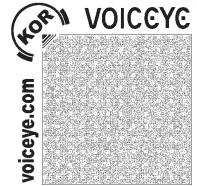
최근 레자미에서 프랑스 시각장애인을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불자들의 세계 공용어인 세계에스페란토대회가 열렸습니다. 구영철 회장님의 지인이 그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프랑스에서 온 시각장애인 참가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구영철 회장님은 레자미 회원들과 프랑스의 시각장애인이 만날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프랑스의 시각장애인 필립을 만나 프랑스의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한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더운 여름 한국의 인기 간식인 팥빙수도 나누어 먹었습니다. 또 그동안 레자미 활동을 통해 터득한 프랑스어로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는 상황극을 펼쳐 보기도 하였습니다.

약 2년 동안의 레자미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얼마 전, 프랑스의 정통 가정식을 한국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식사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서래마을의 프랑스 식당에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프랑스 정식 코스요리를 주문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 시간동안 식사를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희 레자미 회원들과도 코스요리를 주문해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음식을 맛보며 프랑스의 식사 문화를 체험해보았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프랑스 정식 코스이지만 아무래도 한국의 생활에 맞추다 보니 프랑스에서는 3시간도 넘게 식사를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전 메뉴의 식사를 마치기 전에 다음 메뉴가 나와 1시간이면 모든 식사를 마칠 수 있었고, 이 점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프랑스에 대해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레자미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관심을 많이 갖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프랑스 문화에 다가갈 수 있도록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영국, 미국, 일본 등의 문화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프랑스 문화는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 프랑스어나 프랑스 문화가 묻어있는 경우가 생각보

다 많은데요. 화장품 브랜드 ‘라네즈’는 프랑스어로 ‘눈(겨울에 내리는 눈)’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베이커리 ‘뚜레쥬르’는 프랑스어로 ‘매일매일’을 의미하고, 카페오레 등도 프랑스어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녹아있는 프랑스의 문화나 언어를 찾아볼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자미가 동호회 활동을 통해 꿈꾸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희는 레자미를 통해 프랑스의 다양한 문화를 익히고, 프랑스의 시각장애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 2018년에는 평창에 방문해 프랑스 시각장애인들의 패럴림픽 경기를 응원하러 갈 생각이고 6년 쯤 뒤에는 프랑스에 방문해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프랑스의 시각장애인들과 저희 레자미가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서로의 문화와 생활상을 나누며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친구가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 정보이용 차별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지난 9월 7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이마트, 롯데마트, G마켓을 상대로 시각장애인들의 집단소송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국 약 60명의 시각장애인 이 모여 진행되었던 기자회견 당시의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쇼핑물은 다양한 상품들이 업로드 되어 고객이 필요할 때 손쉽게 클릭 몇 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은 시력으로 인해 상품의 설명, 사진 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물건을 살 때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은 대형 유통회사 3사를 상대로 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시각장애 1, 2급 963명이 제기한 57억 7800만 원 규모의 집단소송인데요, 시각장애인들은 이들 기업이 웹사이트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의 정보이용 차별에 대한 피해를 알리고 정보이용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 따르면 장애인의 웹사이트 이용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집단소송에 참여한 시각장애인들은 이번 소송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이용 약자의 디지털 정보 이용에서 발생한 지식격차 해소 및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헝가리에 다녀와서

김철현(시각 1급_서울특별시 은평구)

2017년 6월 30일 오전 7시 30분, 나는 헝가리 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왔다.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동 유럽의 작은 나라 헝가리. 내가 헝가리라는 나라를 가게 된 것은 그곳에서 국제시각장애인 청소년 골볼 선수권대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본 대회는 주최국 헝가리를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브라질, 호주, 스페인, 스웨덴, 폴란드, 이스라엘, 대한민국 등 전 세계 10개국이 참가하는 대회이다. 우리는 남녀 선수단 18명이 참가한다.

우리는 당연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자 본 대회에 참가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골볼을 시작하는 어린 선수들이 국제경험을 쌓고 외국 친구들과 친목을 도모하며 넓은 시야와 골볼에 대해 더 많은 흥미를 갖게끔 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가는 직항노선이 없는 관계로 우리는 핀란드 헬싱키를 경유하여 인천공항을 출발한지 약 13시간 만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프란츠리스트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프란츠리스트국제공항은 헝가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악가 프란츠리스트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현지시간 오후 6시 경 헝가리에 도착하였는데 날씨가 흐리고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기온은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와 비슷하여 시원하고 좋았다.

다음날 헝가리에서 맞이하는 첫 아침!

햇살이 따사롭고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전혀 습하지 않은 정말 상쾌하고 좋은 날씨다. 우리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아침식사를 하고 공식훈련이 있는 경기장으로 이동하였다. 우리 숙소와 경기장은 부다페스트 시내에서 좀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조용하고 작은 동네 분위기가 느껴졌다.

이틀간의 공식훈련을 마치고 7월 3일 드디어 대회가 시작되었다. 남자팀의 첫 상대는 스페인이고 여자팀의 첫 상대는 주최국 헝가리였다. 어린 선수들이 시차도 잘 적응하고 현지 음식도 잘 먹으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모습이 대견스러웠다.

자신감을 갖고 입한 첫 경기에서 남자팀 및 여자팀 모두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었다. 첫 경기의 깔끔한 승리로 대회 상위입상의 기대감을 높였으나 경기가 거듭되면서 선수들의 부상과 체력저하 등으로 남자팀은 8위, 여자팀은 7위로 대회를 마감하였다. 다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회였지만 우리 어린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외국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며 스스로 경기력을 분석하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좋은 경험이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귀국하기 전날, 우리는 결승전을 관전하고 한국에 가져갈 선물과 시내관광을 위하여 부다페스트 시내로 향하였다. 부다페스트는 도나우강 동쪽의 부다와 서쪽의 페스트지역이 합쳐져 부다페스트가 되었다고 한다.

첫 번째 관광코스는 겔레르트 언덕이었다. 겔레르트 언덕은 높은 곳에서 부다페스트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다페스트 관광명소 중 하나다. 역시 유명한 관광지라 그런지 한국인, 중국인, 외국인 등 많은 관광객이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다.

두 번째 관광코스는 유람선 탑승.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알 수 있는 야경 코스였다. 부다페스트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야경이다. 그래서 우리도 유람선을 타고 부다페스트 야경을 감상하였다. 1시간 코스의 유람선에서 본 부다페스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다. 특히나 금빛으로 빛나는 국회의사당은 내가 본 야경 중 최고였다. 같이 간 전맹 친구들은 이 아름다운 광경을 직접 볼 수 없어 아쉬워했지만 일행의 경관 해설과 기념사진 촬영으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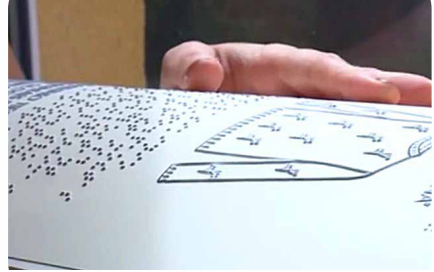
마지막 여행코스는 부다 왕궁과 어부의 요새였다. 이 곳 역시 부다페스트 야경 명소 중 하나였다. 우리는 이곳에서 달빛과 가로등 불빛이 어우러진 부다페스트 시내를 내려다 보며 아쉬운 부다페스트 관광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간단히 아침을 먹고 곧바로 공항으로 이동하여 갈 때와 마찬가지로 헬싱키공항을 경유하여 무사히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9일간의 헝가리 여행, 대회일정상 많은 곳을 가보지는 못했으나 헝가리의 날씨, 마트에서 만난 친절할 헝가리 사람들, 짧지만 큰 감동을 주는 시내관광, 지은 지 몇 백 년이 넘은 건물들이 모든 것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상 디자이너, 루질레

리투아니아의 의상디자이너 루질레 씨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옷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루질레 씨는 옷의 모양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옷 패턴을 손으로 만져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로 디자인 카탈로그를 제작했는데요. 이 카탈로그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디자인 샘플로 자신에게 어울릴만한 의상을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루질레 씨는 점자 카탈로그를 만든 이유에 대해 “시각장애인들이 평소 자신들이 입고 다니는 옷에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더욱 다양한 디자인을 연구해 제작할 루질레의 점자 카탈로그가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 감각으로 사물을 인지하는 멜리나 캐닝



스코틀랜드 남서부 래닉서 북부 위소에 사는 멜리나 캐닝은 딸 스테파니가 두 살이던 18년 전, 뇌졸중으로 인해 뇌에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인 ‘시각 피질’에 치명적 손상을 입고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캐닝은 몇 년에 걸쳐 새로운 감각을 발전시킨 덕에 극소수에게만 일어나는 ‘맹시’를 통해 사물의 윤곽을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맹시란 시각 자극 처리에 대한 의식적 경험은 없어도 무의식적으로 자극을 처리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캐닝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물체의 움직임과 모양을 무의식적으로 지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닝은 현재 ‘맹시’ 연구를 위해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서 열리는 안과 학회에 참석해 연구를 돕고 있으며 현재 이와 관련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맞돈재 캠핑존에서 시각장애인 캠핑스쿨 열려

지난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월악산 국립공원 맞돈재 캠핑존에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캠핑스쿨이 열렸습니다. 국가지질공원과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평소 야영 체험을 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캠핑 체험뿐만 아니라 도예 체험, 자연관찰 트레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요. 이번 캠핑스쿨에 참가한 시각장애인 가족들은 “평소 캠핑에 대한 호기심만 가지고 있었는데 직접 체험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며 즐거워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시각장애 청소년을 위한 보드게임 제작

금융감독원이 시각장애 청소년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보드게임 ‘터치터치 금융여행’을 제작했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보드게임은 금융감독원에서 기존에 제작한 ‘신나는 금융 여행’을 시각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 설명서와 함께 제작한 것인데요.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표시된 게임판과 자석을 점목시킨 말을 이용하여 직접 플레이할 수 있으며 각각의 게임 구성품 역시 점자가 포함되어 구별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터치터치 금융여행’은 전국 맹학교,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청소년 거주 생활시설 등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한시련, 제31회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점검자 양성교육 개최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31회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자 양성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17개 시도의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부족한 지역의 편의시설 전문가를 충원하고자 마련되었는데요.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은 추후 지역 내의 편의시설과 관련한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2017 점역교정사 보수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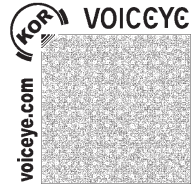
지난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2017년 점역교정사 보수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은 영어,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국어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총 10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자격증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인데요.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수교육을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에 참석한 점역교정사들은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2017년 한국 점자 규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래방에 갈 때

시각장애인들은 암기력이 대부분 좋은 편입니다. IQ가 유독 높다거나 비장애인보다 더 좋아서가 아니라 필요한 것을 외워두는 생활이 습관화됐기 때문이겠지요. 노래방에서 노는 모습은 비장애인 들이 어우러지는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울리세요.

단, 노래방 자막이 너무 작고, 곡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세요. 시각장애인이 선호하는 곡명을 찾아달라고 하는 대로 선곡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사를 잘 모르는 노래라면 한 소절 앞부분 가사를 읽어주어 따라 부를 수 있게 하면 됩니다. 함께 자리한 사람들이 친구나 가족같이 편안한 사이에는 관계 없지만, 직장처럼 상하가 있는 관계나 아직 덜 친한 사람들이 섞인 경우 적절히 노래순서를 안내하는 것도 배려라 하겠네요.



|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한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손으로보는세상 2017년 9월 206호

발행일 2017년 9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이병돈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799.1043 F 02.799.10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디 02.867.1921 캘리 모노D